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조지훈 전주시장, 민선9기 첫 기업 현장 소통

8 · 16면
정읍시, 민선9기 더 큰 도약 완성

전주매일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음 5월 19일) 제40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살아가는 힘 키우는 전북교육’ 선포

천호성 교육감 취임식

학령인구 감소 · 지역소멸 교육격차 등 혁신으로 극복 학생들 미래 개척 역량 카우는 교육으로 전환

2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 천호성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식에서, 천호성 교육감 부부가 도내 학생 대표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천호성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일 공식 취임하며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새로운 교육 비전으로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교육격차, 입시 중심 교육 등 전북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교육 혁신으로 극복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4면〉

천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교육공동체와 도민, 이원택 도지사, 김승환 전 교육감, 전춘성 진안군수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당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이재명 대통령 축하 메시지 대독을 시작으로 교육공동체 축하영상 상영, 소원바구니와 꽃다발 증정,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전북교육이 처한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와 지역소멸의 위기, 교육공동체의 신뢰 약화,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교육격차 심화 등을 언급하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을 넘어 상생으로,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전북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한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인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가 빛나게, 다함께 새롭게’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정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천 교육감은 향후 4년간 추진할 핵심 교육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이다. 그는 “기초학력은 모든 성장의 출발점이자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실과 학교, 학교 밖을 연계한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학생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 강화다. 천 교육감은 학생진학진로교육원을 설립하고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진학·진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며 AI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독서교육과 인문교육을 강화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하면서도 사람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육성 정책도 비중 있게 다뤘다. 천 교육감은 교육이 지역 정착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교육과정을 다양화·특성화·지역화해 전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농생명과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스마트농업, 문화콘텐츠, 금융, 피지컬 AI 등 전북의 미래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대학·지자체가 협력하는 학습-현장-채용 연계 모델을 구축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복지 확대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천 교육감은 온동네돌봄책임운영제와 아침밥차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도 추진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작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통폐합은 지역사회의 자발적 합의를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유학생 확대와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해 학생이 머무는 학교, 가족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어촌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 의지도 밝혔다. 천 교육감은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감시받겠다”며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특별감찰위원회를 운영해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도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천 교육감은 취임식에 앞서 본청 간부들과 함께 순직교원 추모탑을 참배하며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겼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전주효천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개원식에도 참석해 교육청과 지자체, 도의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천호성 교육감은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촌유학생 확대와 교육혁신선도지역 유치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오상근 기자

2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에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갖고 있다.

전북 전략산업 정부 반영 총력

이원택 도지사, 산업부와 ‘5극 3특 성장엔진’ 정책 협의

로봇 · 바이오 분야 산업 정의, 핵심품목 확대 필요성 전달

산업 경쟁력 · 성장 잠재력 반영 균형발전 기반 마련 요청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에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책 협의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이 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성장엔진 산업의 정의와 핵심품목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전달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성장엔진’의 세부 산업 정의와 핵심품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첨단로봇 분야의 산업 범위를 제조 중심에서 첨단소재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기술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 기반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핵심품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생명바이오 분야는 농식품과 바이오를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 산업 정의를 확대하고, 전북의 강점 산업과 성장 잠재력이 국가 성장엔진 핵심품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그동안 정부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성장엔진 산업의 정의와 핵심품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첨단로봇과 농생명바이오는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산업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산업 개념 확대와 품목 반영을 역설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5극3특 성장엔진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이 가진 산업적 강점과 성장 잠재력이 정책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이 강점을 보유한 첨단로봇과 농생명바이오 산업이 국가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한 줄 소식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민생 해결 사력”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